

# 가사노동에 관한 인식의 변화 고찰\*

## A Study on the Perceptual Transition of Housework

호남대학교 생활과학과

조교수 尹淑賢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文淑才

Dept. of Living Science, Honam Univ.

Assistant Professor : Sook-Hyeon Yoon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Sook-Jae Moon

### 〈목 차〉

I. 서론

II. 가사노동에 관한 인식의 변화

III.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ual transition of housework from the ancient society to the modern society. In the ancient society,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meaning between domestic life and housework, it was thought that they were whole unity. In the medieval society, there was a beginning to differentiate the meaning between domestic life and housework, but there was no actual division between the one and the other. But in the modern society, it is thought that domestic life and housework is not only differentiated in concept, but also divided actually.

#### I. 서론

현대 가정생활의 모습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안심하고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대 가정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이

\* 본 연구는 첫 번째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기초함.

와는 정반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는 가정생활의 '위기'라는 말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호소력을 가질 것이다.

가정생활의 이러한 위기감은 어디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가? 이 문제는 현대인의 사회적 삶의 문제와 너무나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현상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은 '가사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가정생활이 가사노동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그것의 논리적 가정으로서 가사노동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가정생활의 변화를, 가사노동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가정생활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가정생활에 대한 위기감은 바로 이러한 가정생활에 관한 인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에 관한 인식의 변화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사노동에 관한 인식의 변화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노동의 형태는 사회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노동 형태의 변화는 사람들이 노동의 의미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의 의미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가사노동 또한 외관상 '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바로 그 점으로 인하여 '가사노동'의 의미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왔다.

가사노동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는 단순히 가사노동의 의미에 관한 '인식의 차'라는 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그것은 가정에 관한 사람들의 관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며, 나아가 사람들

의 '삶의 자세'의 변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가정생활 혹은 가사노동에 대한 현대인들의 태도를 이해하게 해주며, 나아가 미래 사회에서의 양상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II. 가사노동에 관한 인식의 변화

노동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므로 노동에 관한 인식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삶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는 과거와 현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Zijderveld(1972)에 의하면, 고대나 중세 사회의 사람들이 '구체적인 삶'을 살았던 데에 비하여 근대 이후의 사회의 사람들은 '추상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이 점에서 근대 이후의 사회는 '추상적 사회'로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원시 사회나 고대 사회, 그리고 중세 사회는 '구체적 사회'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밑바닥에는 한편으로는 생산양식의 변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사상의 발달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사노동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사노동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고대 사회의 Aristoteles, 중세 사회의 Aquinas, 근대 사회 이후의 근대적 합리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사실상, 어떤 사회를 '구체적 사회'와 '추상적 사회'로 양분해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상이한 사회의 모습을 양 극단으로 했을 때, 개별적인 한 사회는 이 양 극단의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얼마나 이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원시 사회로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는 과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세계와의 총체 속에서 파악하던 사고 방식에서 점점 세계와 분리해서 또는 세계와 무관하게 파악하는 사고 방식으로 변천되어 온 과정이며, 이 점에서 원시사회에서 현대 사회에 이르는 과정은 '구체적 사회'에서 '추상적 사회'로 이행되어 온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 1. 원시 및 고대 사회: 개념적 구분도 사실적 분리도 없는 사회: Aristoteles

원시 사회는 사냥과 식물의 채집 등 야생의 자원을 이용하는 식량의 획득방식에 기초한 사회로서, 야생 자원의 분포에 따라 옮겨 다니는 이동생활을 기본으로 한다. 이 사회는 사유권의 개념이 발달해 있지 않았으며, 사회적 위계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다(김주희, 1992, pp.80-81).

이 시기의 사회는 식욕, 동물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정과 같은 일차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노동이 이루어졌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소비를 주된 목적으로 하던 사회였다. 이와 같은 모든 노동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조금 단순화하여 표현하자면 이 당시에는 가정생활 이외의 다른 생활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가정생활은 삶 전체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원시 사회가 해체되고 금속기구의 사용, 문자의 발명이 이루어지면서 최초의 국가와 문명이 발생되어 고대국가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협동노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의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집약적 농업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노동시간은 크게 증가되었고, 남성과 생계노동, 여성과 가사노동과의 연계가 고정화되었다.

고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와 같이 가사노동과 생계노동으로서의 임금노동이 분리되기 시작하였지만, 임금노동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은 원시 사회에서의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임금노동의 초기 형태가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획득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의 의미에 비추어 보지 않는 한, 임금노동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고대 사회에서의 노동관은 Aristoteles의 사상<sup>2)</sup>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기원전 4세기에 Aristoteles는 인간행동을 목적에 따라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즉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위한 가정학(oikonomia)과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이라는 요구를 넘어서는 영리 추구를 위한 영리학(chrematistike)으로 나누고 이들 중 가정학을 우위에 두었다(문숙재 외, 1996, p.175). Aristoteles에 의하면, “재산은 가정을 구성하는 일부 부분이므로 재산을 획득하는 방법은 가정관리 영역에 속한다”(Aristoteles, 1253b).

Aristoteles는 재산 획득을 위한 행동과 같은 영리 추구의 행동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하나로서 이는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가사 운영의 일부가 되지만, 무제한적인 영리 추구의 행동이 되는 경우에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노동이 인간을 건강하고 부유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에 의하면 재산의 획득보다는 인간, 그리고 재산의 축적보다는 인간다움의 계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노예의 덕성보다는 자유인의 덕성과 관련하여 노동의 의미가 파악되어야 한다(Aristoteles, 1259b).

Aristoteles는 인간 본연의 욕구 충족에 바탕을 둔 가정을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활공동체로 간주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분류나 판단의 근거로서 ‘인간의 선한 의지’를 들고 있다. ‘인간의 선한 의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정은 대부분의 사람이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안한 장소’라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의지에 근거하여 자신의 일차적 욕망을 억제하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로 파악될 여지가 있다. 자신의 욕망을 통제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은 사회화가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가정이다(윤숙현, 1995, p.238).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가정은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실

2) ‘가정’(家政)에 관한 Aristoteles의 생각은 그의 저서 「Oikonomia」와 「정치학」에 잘 나타나 있다. 제목이 시사하는 것과 달리, 가정에 관한 그의 생각은 「Oikonomia」보다는 오히려 「정치학」에 보다 자세히 나와 있다.

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며, 이와 같은 행동은 가사노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Aristoteles에 의하면, 가사노동의 목적은 오로지 가족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에 있었다. 가사노동은 성격상 임금노동이 아니며, 이 점에서 가사노동은 성격상 '덕'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은 '자유민'의 속성과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 가정생활에서 가사노동을 따로 분리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사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과정이 곧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원시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도 가사노동은 가정생활에서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원시나 고대 사회에서는 노동과 생활이 한 가지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생산과 소비, 가정과 사회가 일체로 파악되었으며, 같은 맥락에서 가사노동은 가정생활과 한 가지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원시 사회나 고대 사회에서는 가사노동과 가정생활이 '사실적으로 분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구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sup>3)</sup> 다시 말하면, '그냥' 가정생활이 있을 뿐, 전체 가정생활에서 가사노동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 '가정생활 따로', '가사노동 따로' 라는 식으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에 관한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은 그들의 가정생활, 더 나아가 그들의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들이 삶에 부여하는 의미와 행복감, 불행감은 가사노동을 인식하는 그들의 태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

## 2. 중세 사회: 개념적 구분은 있으나 사실적 분리는 없는 사회: Aquinas

중세 유럽은 토지, 즉 장원에 기초를 둔 봉건사회로서, 토지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법적 및 정치적 위치가 결정되었다. 당시의 장원은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로서, 장원체제 내부에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분업의 조건이 마련되었으며, 도시의 발전은 상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임금노동이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전형적인 여성노동으로서 자급자족적 성격을 띠고 있던 직물 생산노동은 산업노동으로 전환되었다(아하츠 폰 뮐러, 1994, pp.200-248).

가사노동과 농경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있었으며, 독일의 가정에서는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일, 즉 농경, 목축, 양봉, 분만, 빵굽기, 버터, 치즈만들기, 요리, 아마재배, 양치기, 방적, 직기, 재봉, 자수, 염색, 세탁, 청소를 비롯하여 조명, 위생 등에 관한 모든 일이 가족들에 의해 행해지고, 술, 소독약, 비누 등 모든 종류의 필수품이 자가생산된 것으로 파악된다(문숙재, 채옥희, 1986, pp.44).

이렇듯 중세의 사회는 농업을 주된 생업으로 하는 사회로서, 노동의 분화 및 전문화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계층이나 거주지,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인식이 커지게 된 시기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의 내용과 양이 방대해졌고, 노동의 담당자가 여성에 국한됨으로써 여성이 과중한 노동을 경험하던 시기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Aristoteles의 노동관은 중세 사회로 연결되어 발전되었다. 중세 사회에 교회가 등장하면서 기독교적 가계관이 확립되었는데, 이러한 가계관은 Augustine으로부터 시작하여 Aquinas에 이르러 확고한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Egner, 1976,

3) '개념적 구분'과 '사실적 분리'라는 용어는 사회 현상을 보다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철학자들에 의하여 구안된 철학적 분석의 도구이다. 예컨대, 무지개의 색깔을 일곱 가지로 파악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사실적으로 말한다면 무지개의 일곱 가지 색깔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여, '사실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볼펜의 심과 껍질은 '사실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개념적 구분'과 '사실적 분리'를 구분하는 것은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개념적 구분을 사실적 분리로 오인할 때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개념적으로 구분되면 사실적으로도 분리되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실체화의 오류'라고 한다.

p.59).

스콜라주의 철학자 Aquinas는 생활의 필요 충족을 위한 자연스러운 '교환'에 관한 Aristoteles의 논의를 발전시켰으며, 이윤을 추구하는 교환, 즉 '영업'에 관해서는 명예롭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였다(미크, 김제민 역, 1985, pp.66-69).

스콜라주의 철학에 와서는 Aristoteles의 'oikonomia'의 개념이 확대되어 사용되었다. 스콜라주의 철학은 노동에 관한 인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스콜라주의는 '스콜라'(schola)라고 하는 특별한 인식에 기초하여 성립된 사상으로서, 이 인식은 현대에서 중시되는 '활동으로서의 노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대적 의미의 '여가'라고도 볼 수 없다. '스콜라'는 외부 세계를 자신의 세계로 받아들이는 영혼의 활동을 의미한다. 스콜라주의에 있어서 관조(觀照)는 외부 세계의 실재(實在)를 마음 안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식으로 설명된다. 스콜라란 어떤 대상을 탐구자가 보고 싶은 방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물 편에서 드러내는 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인식이다. 중세의 스콜라란 종교적 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종교의식은 신의 은총으로 주어진 세계에 대하여 인간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며, 이는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면서 보여준 희생정신에 동참하려는 의식이나 삶의 태도로 표출된다. 중세인들은 어려웠던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용성과는 거리가 먼 '종교의식'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마련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생활 태도는, 유용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낭비가 되겠지만, 중세인들은 신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외적 조건과 관계 없이 즐겁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스콜라의 의미는 현대와 와서 그 의미가 변질되었으며, 현대인들은 노동을 통하여 중세인들이 누리던 희생의 마음, 숭배의 마음, 즐겁고 풍요로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김승호, 1996, pp.

74-75).

'스콜라'는 노동과 별도로 존재하는 활동이 아니라 노동을 할 때의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종류의 노동이 스콜라와 관련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실상 모든 종류의 노동이 스콜라와 관련을 맺을 가능성의 정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어떤 종류의 노동은 성격상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의 '결과'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쏠리게 함으로써 스콜라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는 반면에, 어떤 종류의 노동은 성격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스콜라와 관련을 맺게 할 가능성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가사노동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보기에 해당하는 것 중의 하나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가사노동 또한 하나의 '노동'이므로 '결과'와 관련지어 의미를 파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이때의 결과는 '특별한 종류'의 결과이다. 가사노동의 가치는 그 결과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sup>4)</sup> 그 과정 속에 들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세의 카톨릭 사회 윤리에서는 세상의 중말, 즉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도덕적 완성을 이루는 일이 강조되었다. 가정은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연습하기 위한 교육의 장소이며, 구체적인 가정생활을 통해서만이 궁극적이고 가장 심오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은 기독교적 삶의 완성을 위한 도장(道場)으로서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중세 사람들의 삶을 심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Schweitzer, 1988, p.41).

이렇듯 중세 사회에서 임금노동이 중시되면서 가정생활 속에는 가사노동 외에 임금노동도 포함되는 인식 곧 가사노동과 가정생활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카톨릭적 가치관

4) 물론 독신자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결과가 그 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가사노동의 결과는 자기 자신보다는 그 밖의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에서 기독교적 삶을 위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가정생활과 가사노동이 사실적으로 별개의 것이라고 분리되어 파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당시 사회에서는 가사노동의 의미는 언제나 가정생활의 의미와의 관련 하에서 파악되었으며,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또한 언제나 가정생활과의 관련 하에서 파악되었다. 총체적 가정생활과 관련을 맺지 않는 가사노동을 위한 가사노동, 또는 부의 축적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된 노동의 세계는 중세의 이념이 아니었다.

카톨릭적 사고의 근거가 되는 Aristoteles의 윤리학은, 청교도주의 윤리학이 그것을 대치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파악된다(Schweitzer, 1977, p.42).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탈리아에서 전개되었던 Renaissance는 중세의 신 중심사상으로부터 인간 중심사상으로서의 변화로서(임채원, 정세현, 1986, p. 137), 이 시기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의식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태도는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 연결되었는데,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Calvin은 청교도적 정신에 기본을 두고 현세에서 주어진 직업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청교도주의 윤리가 지향했던 내적 고행의 추구는 재산의 공정한 사용을 중시하였으며, 이윤 추구의 노력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자본의 생성과 축적이 촉진되었다(문숙재 외, 1996, p.176).

### 3. 근대 사회 이후: 개념적 구분을 사실적 분리로 오인하는 사회: 근대적 합리주의자들

Renaissance로부터 비롯된 인간정신의 발현은 근대적 사고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18세기의 산업혁명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생산과정에 작업기계가 도입되고 공장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작업장소와 거주장소가 분리되어 전통적인 생활습관으로부터 단절되었다(아코스 파올리니, 1994, pp.254-313). 또한 산업혁명은 이전까지 가정

생활 안에서 거의 구분되지 않았던 노동과 교육, 오락 등의 활동을 구획화시켰다. 가족구성원 전체에게 공유된 노동의 장소였던 가정은 이제 개인별로 분리되어 남자는 공장이나 사업장으로, 여자는 가정, 그리고 아동은 학교나 놀이터로 각각 흩어지게 되었다(웨슬리 버어, 1995, pp.393).

특히 19세기 후반 유럽과 미국에서 전 산업분야의 경기침체와 불경기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1895년 Taylor가 차별적 성과급 제도를 제안한 이후, 생산의 노동과정과 관련된 시간의 경제로서 과학적 관리방법이 촉진되었다. 이후 1913년부터 이루어진 Ford의 유동식 생산은 대량생산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독점자본주의의 발달에 기여하게 되었다(알프레드 존 레텔, 1986, 175-208).

이와 같이 산업혁명을 통하여 기계제 생산이 급속하게 보급됨으로써 가정은 자급자족적인 생산단위로부터 구매 및 소비의 단위로 변화되었으며, 사람들의 경제관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영리노동, 직업노동에 대하여 평가절상이 일어난 반면에 가사노동의 가치는 절하되고 Aristoteles의 'oikonomia'의 가치관은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하였다(문숙재, 1982, p.112). 이에 따라 근대 사회 이후 노동이 경제학의 주요 관심분야로 다루어지게 되었을 때 경제학자들은 가정생활과는 분리된 영리노동, 직업노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며,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노동가치론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최근세에 이르러 여성학자들은 역사적으로 가사노동의 주된 담당자가 되어왔던 여성들의 권익이라는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 가치를 어떻게 가치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가사노동 가치론을 발전시켜왔다. 즉 Smith로부터 Marshall에 이르기까지 근대 초기의 경제학자들은 가족의 생계 보장을 위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임금에 포함시키는 방법과 같은 가족 임금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조상국, 1991, pp. 61-100), 196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여성학의 연구에서도 경제학적 방법론을 받아들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해왔다.<sup>5)</sup>

이와 같이 노동 문제가 경제학의 관심 분야로 넘

어가면서 초기 사회에서는 가정생활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던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점차 사람들은 생활에서 노동을 따로 분리시켜 그것의 독립적인 가치를 찾으려고 하였다. 근대 사회에서의 노동은 점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위나 계급, 보수 등과 결부되어 인식되었다.

가정생활과 가사노동이 사실상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고 방식으로 두드러지게 바뀐 것은 근대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며,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근대 산업 자본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근대적 합리주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사노동의 의미를 오직 '이성'에 의해서 파악하려고 한다는 데에 있다.<sup>5)</sup>

합리주의자의 사고는 '이성'의 권위 이외에 다른 어떤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합리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의 가치를 입증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것은 하등의 가치를 가질 수 없으며, 이성의 엄밀한 분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합리주의자는 자기 의식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일으킨 변화가 아니면 변화로 인정하지 않는다. 합리주의자에게 있어서 전통적 관념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가 아니면 개선해야 하는가는 아예 문제로 대두되지도 않는다. 보존도 개선도 결국, 전통에 복종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전통은 오직 파괴의 대상이다(Oakeshott, 1991, pp.5-9).

이러한 사고 방식은 가사노동의 의미 또는 가치를 파악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합리주의자가 볼 때, 수십 세기를 거쳐 오늘날과 같은 가사노동의 형태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가사노동이라는 인간 현상 속에는 비록 우리가 그 의미를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

다운 삶과 관련지어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이성적인' 또는 '비합리적인' 사고 방식이다. 합리주의자들은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그 의미가 불분명한 채로 존재하는 가사노동을 객관화시켜 그것을 어떤 객관적 잣대, 즉 이성이 납득할 만한 어떤 기준에 의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들은 가사노동에 들어 있는 불분명한 의미를 애써서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다른 가치(즉, 현재의 보편적 가치)로 환원하여 그것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한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사람들이 가사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

즉, 가사노동을 현재의 보편적 가치인 화폐가치로 환원하여 파악하려는 시각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는 가사노동이 임금노동에 비하여 낮은 평가를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더 나아가서 가사노동을 인간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가정생활과 분리시켜 파악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급자족적인 생산이 주를 이루었던 봉건 사회까지만 하더라도 가사노동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는가 또는 가사노동의 담당자가 고립감을 느낀다는가 하지는 않았으나, 교환의 가치가 중시되는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가사노동의 가치가 저하되고 노동의 담당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대되어 왔다(정영금, 1993, p.77).

### III. 결 론

수렵채집 사회에서 산업자본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가사노동은 그 내용이나 담당자에 있어서 변화를 보여왔다. 가사노동이 한 가정의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인간의 생활양식 변화와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의 내용 또

5) 이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은 윤숙현(1997)의 박사학위논문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에 관한 연구", pp. 19-22를 참고할 것.

6)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오로지 '이성'에 의해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대의 수많은 사회사상가들은 이성의 이러한 한계성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왔다.

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의 분담형식도 달라질 것이다. 가사노동의 내용변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 사회의 실체를 파악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내용 변화와 함께 나타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인간다운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지만, 노동가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본래의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인식의 변화는 좀더 중시되어야 할 부분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정생활과 가사노동이 개념적으로 구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한계였다. 이 상태는 인간이 지력이 충분히 힘을 발휘한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보다도 더 불행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 다음, 중세 사회에서는 가정생활과 가사노동이 개념적으로 서서히 구분되기 시작했지만 사실적으로 분리되지는 않았다. 즉, 가사노동의 존재가 파악되고 독립적으로 설명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사노동이 가정생활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든가, 그 자체로 얼마든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가사노동은 총체적 가정생활의 일부분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임금노동 또한 올바른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이 당시의 임금노동은 다분히 가사노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이 점에서 임금노동은 가사노동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사노동에 관한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근대 사회는 그 이전의 사회와 확연히 구분된다. 가사노동과 가정생활은 개념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구분되었으며, 그리하여 가정생활의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가사노동과 가정생활은 개념적

으로 얼마든지 구분될 수 있으며, 또한 구분해야 우리의 총체적 가정생활 속에서 가사노동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이 지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보다 많은 개념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구분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가사노동과 가정생활의 관련에 관한 근대 사회 이후의 오류는 이 둘이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분리된다고 생각한 데에 있다. 이제 가사노동은 가정생활이라는 총체적 현상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가정생활과는 별도로 가사노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가정생활과 별도로 존재할 수 없으며, 가사노동이 가정생활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것은 이미 가사노동이 아니다.

근대사회에 들어서서 사람들의 인식을 크게 바뀌게 하였던 합리주의 사상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이와 같은 서구의 근대적 합리주의 사상이 가정에까지 침투되면서 가사노동의 의미가 변질되었고, 이에 따라 가사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혼란을 초래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가사노동이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사노동이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족쇄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근대 이후 분리되었던 가정과 생산의 장소가 다시 일치될 것이라고 보는 점이나 노동의 전문화, 세분화로 인하여 성별 및 계층에 따른 노동의 분담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 점, 또한 첨단설비의 도움을 받아 신체노동의 비중이 최소화되고 정신노동이 보다 중시되리라는 점 등은 우리의 가정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채택(在宅)근무라는 임금노동의 형태는 앞으로 가사노동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관상 보기에, 이것은 가정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졌던 원시, 고대 사회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노동과 임금노동, 가사노동과 가정생활, 가사노동과 올바른 인간의 삶이라는



구분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인간이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져 왔던 노동의 본질적 의미를 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노동,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 그리고 노동에 대한 바른 관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가사노동이 가정생활, 더 나아가 인간의 삶 전체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승호(1996). 스킨라주의 교육목적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김주희(1992). 가족의 기원. 「가족학」. 한국가족학연구회(편). 하우.
- 3) 로날드 L. 미크(저). 「노동가치론의 역사」. 김제민(역)(1985). 서울: 풀빛.
- 4) 문숙재(1982). 가사노동의 가치와 평가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0(4). 108-115.
- 5) 문숙재, 박인숙, 김순미, 홍성희, 윤숙현(1996). 「새로 보는 가정경영」. 서울: 학지사.
- 6) 문숙재, 채옥희(1986). 「가사노동」. 서울: 신광출판사.
- 7) 박홍립(1988). 「경제학 원론」. 서울: 박영사.
- 8) 알프레드 존 레텔(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철학적 인식론 비판」. 황태연·윤길순(역)(1986). 서울: 학민사.
- 9) 웨슬리 버어(저). 「새로 보는 가족관계학」. 최연실(역)(1995). 서울: 하우.
- 10) 윤숙현(1995).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관 연구. 「호남대학교논문집」. 16(2). 235-246.
- 11) \_\_\_\_\_(1997).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2) 임채원, 정세현(1986). 「세계문화사」.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13) 정영금(1993). 가사노동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1(3). 75-87.
- 14) 조상국(1991). 여성과 가사노동-경제학적 접근. 「여성문제연구」, 19, 61-100.
- 15) Aristotle. *Oeconomica*. the Works of Aristotle. Foster, E.S.(trans.)(1966). Oxford. Clarendon Press.
- 16) \_\_\_\_\_. *The Works of Aristotle*(orig. 1915). vols. IX. X. Sir D.Ross(trans.)(1966). Oxford University Press.
- 17) Egner, E.(1976). *der Haushalt-Eine Darstellung seiner volkswirtschaftlichen Gestalt*. Duncker & Humblot. Berlin.
- 18) Oakeshott, M.(1991). *Rationalism in Politics. Rationalism in Politics and Other Essays*. new and expanded edition. Indianapolis: Liberty Press.
- 19) Schweitzer, R. v.(1977). From the economic writings of Aristotle to home economics in the German federal republic today. *Journal of Home Economics*. 1. 41-50.
- 20) \_\_\_\_\_(1988). *Lehren vom Privathaushalt*. Campus Verlag. Frankfurt /New York.
- 21) Zijderveld, A. C.(1972). *The Abstract Society: A Cultural Analysis of Our Time*. Penguin Books.